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3. 12. 28.(목)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박영미*, 임동훈**, 김세완, 김재욱, 정연화, 염수경, 이수지, 이명경, 오숙환, 김정권	고민희(간사)
불참인원	2	김병선, 임진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 자문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2023년 대학평의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 따라 이번 회의는 12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김병선, 임진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10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다.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논의

가. 자문사항

- 제1호의안: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 자문

- (1) 의장은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화의료원, 학교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안건 설명을 위해 이화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에서 배석해 주셨음을 알리고, 배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 부분부장, 전략기획 팀장, 전략기획팀 예산파트장)

- (2)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원 현황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보고하고, 전략기획팀장은 2023학년도 추경예산을 설명하다.
- (3) 김정권 평의원은 의료 수입 대비 서울병원의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 혈관병원 관련 일시적인 것이지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다.
- (4) 전략기획본부장은 혈관병원 개원하며 추가 채용한 부분이 있고, 초기 예산은 병상수를 유동적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작성하였고 확대 개원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의료 질 평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력 배정 등이 필요하여 인건비 지출이 상승하였음을 설명하다.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에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나 전체 교원 부족 등으로 최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리며 앞으로 좋은 교원들을 영입하여 매출 증가를 통해 인건비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 (5) 김세완 평의원은 2023년 입원 환자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2024년에는 10% 증가한 것이 병상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질문하다.
- (6) 전략기획본부장은 병상수 증가 때문이라고 답하고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증가율은 감소하였음을 알리다. 계속해서 병상수를 늘렸기 때문에 증가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산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다.
- (7) 의장은 현재 병상 가동률에 대해 질문하다.
- (8) 전략기획본부장은 요일별로 상이하냐 평균 80% 정도임을 답하다. 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없어 주말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나, 보통 85% 정도면 중환자실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다.
- (9) 정연화 평의원은 목동병원 수입 부분에 기부금이 크게 감소(25.2억 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다.
- (10) 전략기획본부장은 일시적 기부금 증가로 인한 현상이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11) 의장은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2024학년도 예산 설명을 요청하다.
- (12) 전략기획팀장은 2024학년도 본예산을 설명하다.
- (13) 김정권 평의원은 인건비 관련 지출부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차기이월자금으로 넘어가고 이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백분위로 표기하다보니 비율만 보면 서울병원의 인건비가 비효율적으로 보임을 지적하며 단기 발생 비용만으로 비교해 보는 것을 제안하다.

- (14) 전략기획본부장은 차기이월금을 제외하면 서울병원의 손익이 상당히 호전되지만 현재 회계지표상 표기임을 설명하다. 병원마다 차기이월금 등을 표기 방법이 다르며 이 부분은 평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하다.
- (15) 김정권 평의원은 현재 서울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이월금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외부 홍보 등에도 문제가 될 것임을 말하다.
- (16)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은 비노기, 여성암 등의 특성화 병원으로 이월금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서울병원도 이에 맞춰 대동맥혈관병원을 론칭하였고 내년에는 새로운 특성화 병원을 계획하는 등 양 병원의 포지셔닝에 맞는 특성화 병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다.
- (17) 김정권 평의원은 현재 의료원의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 질문하다.
- (18) 전략기획본부장은 2028년도까지 부채 등이 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상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가산을 적용 변경에 따라 이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서울병원을 완전하게 개원하게 되면 2028년 정도면 본궤도 오를 것이라 추측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19) 김재욱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관리운영비와 관련하여 법정부담금과 교직원 복리후생비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0) 예산파트장은 법정부담금은 2024년 본 예산에 추가된 인원들이 있어 4대 보험료 등의 부담금이 늘어 반영한 부분이며 복리후생비 역시 인원수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을 설명하다.
- (21)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 병상 증가로 간호사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그에 맞는 법정 부담금과 복리후생비 증가가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 (22) 의장은 추경 예산과 2024년 예산에서 인건비 증가에 대해 지난해 교원 수 증가 및 내년 채용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다.
- (23)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증가는 없는 상황이나 전문 인력들(입원 전담의, 응급실 전담의 등)을 병원 의료 질 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있음을 설명하다.
- (24) 의장은 의료원의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예산), 예산팀장)

- (25)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 (26) 김정권 평의원은 교육외 수입의 ECC 삼성화재 보상금이 유형고정자산 지출의 ECC 삼성홀 침수 복구 공사와 연관된 것인지 질문하다.
- (27)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연관된 것이 맞다고 답변하다. 보험금 일부 선수령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2024학년도에 추가적으로 산정해 수령 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28) 김정권 평의원은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을 따로 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다.
- (29) 예산팀장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총액주의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30) 김정원 평의원은 기부금이 예산 대비 84억 원 감소한 것에 대해 계획과 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질문하다.
- (31) 예산팀장은 헬렌관과 생활환경관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부금 모집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초기 25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기가 지연되어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것임을 설명하다.
- (32) 의장은 고정부채상환에 대해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33) 예산팀장은 산학협력관 건축과 관련하여 솔베이로부터 받은 장기선수금을 매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임을 설명하다.
- (34) 김재욱 평의원은 일반관리비 중 공공요금이 약 4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학교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다. 또한 공공비용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35) 예산팀장은 관련하여 TFT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리다. 현재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가 큰 부분이며 사용량에 따른 증가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감소시켜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처와 총무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다.
- (36) 기획처부처장(예산)은 단가 인상과 더불어 대면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교내 체류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증가한 부분도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 (37) 임동훈 평의원은 의료원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일텐데 의료원과 비교해 보아도 학교의 증가 폭이 큰 것 같다고 질문하다.
- (38) 예산팀장은 구성원들의 동참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통제를 목표로 2022학년도 결산 금액 수준으로 2023학년도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이 크고 교내 체류

인원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초기 보수적으로 책정하였던 예산 대비 차액이 커보이는 것임을 설명하다.

- (39)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에너지 사용량 통제를 하고자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더 증가할 수 있는 비용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관리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성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을 알리다.
- (40) 김정권 평의원은 병원보다 학교의 에너지 사용량 통제가 더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다.
- (41) 김세완 평의원은 2023학년도부터 병원 전입금이 들어오고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금을 인출한 이유를 질문하다.
- (42) 예산팀장은 병원 전입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기금 인출을 통해 경상자금과 기타 투자자금을 충당해 온 부분이 있음을 알리다. 올해부터는 전입금을 받았지만, 물가 인상 및 ECC 화재 관련 복구 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집행이 있어 기금을 인출하였음을 설명하다. 내년에는 화재 관련 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말하다.
- (43) 임동훈 평의원은 특정목적기금에서 주로 인출이 되었는데 이 경우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일반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특정목적기금 인출 이유를 질문하다.
- (44) 예산팀장은 기금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목적과 관련된 사용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은 상황임을 설명하다. 특정목적기금 인출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 자원, 교내 정보 인프라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답하다.
- (45)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연구, 장학, 건축 외의 사업은 특정목적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 (46) 김세완 평의원은 원금보존기금에 있는 것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옮겨 사용한 것인지 질문하다.
- (47) 예산팀장은 원금보존기금에서 임의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용한다고 답하다.
- (48) 김세완 평의원은 학교 경영진으로부터 기금 인출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기금 인출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다.
- (49) 기획처장은 2023학년도 예산을 2019년(코로나 이전) 상황에 맞춰 편성했는데 물가 상승 및 학교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 증가하여 그동안 지출을 통제하면서 버티었던 것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리다. 또한 ECC 화재 등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지출이 커진 상황임을 설명하다.
- (50)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관리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다.
- (51) 의장은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2024학년도 예산 설명을 요청하다.

- (52) 기획처장은 2024학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다.
- (53) 김정권 평의원은 등록금 수입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 및 매년 추세 등을 질문하다.
- (54) 예산팀장은 지난해 신규 외국인 학생의 모집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증가 부분의 절반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다.
- (55) 김정권 평의원은 2023학년도 추경 예산과 2024학년도 등록금 수입이 동일함을 지적하며 외국인 학생 증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다.
- (56) 기획처부처장(예산)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인 학생 입학생이 늘고 있고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해 국제처가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관련하여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처와 협의 중임을 알리다.
- (57) 김재욱 평의원은 2024학년도 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 증원도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질문하다.
- (58) 예산팀장은 포함된 것이라 답하며 2023학년도 등록금 수입이 예상보다 컸고 이것을 2024학년도에 유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가된 것과 같다고 설명하다.
- (59) 기획처부처장(예산)은 등록금 수입을 여러 변수를 반영하여 예측하고 있지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알리며, 등록금의 경우 0.1%만 변경되어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고 예산 편성 시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60) 이수지 평의원은 현재 외국인이 많은 학과에서 외국인 모집을 늘리는 것인지 학교 전체적으로 외국인 학생 모집을 늘리는 것인지를 질문하다.
- (61) 기획처장은 국제처가 인위적으로 특정 학과의 외국인 학생수를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리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본교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수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지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62) 김정권 평의원은 학교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연구가 중요한데 교수 인건비는 동결 수준이고 학생 연구비도 감소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과 연구에 대한 선제적 노력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다.
- (63) 기획처장은 재무 건전성을 우선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안내하고, 교원의 질적 우수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말하다.
- (64)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협상을 통해 변동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연구비의 경우 코로나 때 진행하지 못했던 연구가 2023학년도에 많이 배정되었고, 2024학년도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 예측하여 예산

- 에 반영한 것이나 실제 연구비가 증가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다.
- (65) 임동훈 평의원은 본교 교원의 급여 수준이 낮은 상황인데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 예산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다.
- (66) 오숙환 평의원은 교원의 질적 우수성을 따지기 전에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 (67) 예산팀장은 전임교원이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상황임을 답변하다.
- (68) 임동훈 평의원은 현재 증액 된 연구활동비 4억 원 수준에서 우수한 신입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다.
- (69) 기획처장은 본교 교직원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학교의 의지가 강하고, 2024학년도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 (70) 의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지적하다.
- (71) 오숙환 평의원은 전체적으로 교원 숫자가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특정 대학의 경우 줄어 있는 상황임을 알리다.
- (72) 의장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22억 원 가량의 인건비 예산 변동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Frontier 10-10 사업의 경우 인력 충원이 중심이 되는 연구사업인데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해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닌지 질문하며, 그렇다면 Frontier 10-10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73) 오숙환 평의원은 예산 편성이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다.
- (74) 의장은 예산은 학교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학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을 말하다. 그런데 토지 건축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며, 아직 EWC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 진행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 등이 없었음을 지적하다. 그리고 지난 해 생활환경관과 헬렌관 재건축에 대한 설계 공모가 있었고 공모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생활환경관은 선정작이 없었다고 말하며 차년도 예산에 생활환경관 재건축 비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질문하다.
- (75) 예산팀장은 Frontier 10-10 사업은 우수 교원분들을 모시어 향후 학교의 평가나 연구와 관련된 성과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며 2023학년도의 경우 채용 일정이 지연되어 지출 금액이 감소한 것임을 설명하다. 2024학년도에는 계획한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것임을 안내하다. 그리고 생활환경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최근 당선작 발표가 있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련 비용(시설 이전 등)을 2024학년도에 반영한 것임을 알리며 이 부분은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76) 기획처장은 첫 번째 공모 시 ‘당선자 없음’을 결정하였으나 당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던 시기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리며 현재는 학교가 승소하여 2차 공모 절차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 (77) 의장은 건축비용이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그 중 1,000억 원 이상은 기부금 수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지난해 기부금은 건축 기부금을 포함해 총액이 170억 원 수준임을 지적하며 기부금 수입으로 이어져야 할 재건축 건물의 설계가 반드시 2024학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다.
- (78) 기획처장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 이후 캠퍼스 모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협력처가 기부를 진행하기 어려웠음을 알리며 2024학년도부터는 관련 기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설명하다.
- (79) 임동훈 평의원은 예산은 사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편성되는 것인데 이전까지 기부금 현황을 보았을 때 1,000억 원 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다. 사업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공청회 등)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편성하면 추후 책임은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말하다.
- (80) 기획처장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에는 우려가 따르지만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다.
- (81) 의장은 지난 1학기 공청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진행되지 않았고, 건축 비용을 기부금 수입으로 감당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이 아닌 기금 인출을 통해 설계비용을 확보한 것을 지적하다.
- (82) 간사는 헬렌관과 생활환경관 재건축은 서울시의 인허가 관련 부분을 고려하여 시기를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노후화된 건물 개선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와 공감성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다.
- (83) 임동훈 평의원은 1,000억 원의 기부금에 의존해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 (84) 기획처장은 관련하여 검토 후,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하다.
- (85)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재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을 상황은 아님을 부연 설명하다.
- (86) 김정권 평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므로 2024학년도 예산에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추경 예산에 반

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87) 의장은 김정권 평의원의 제안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평의원들이 동의한다고 답하다. 이에 대학평의원회 자문 의견으로 재건축 관련 예산을 2024학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다.
- (88) 염수경 평의원은 기숙사 수입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기숙사 사실이 100% 운영되어 더 많은 사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증액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질문하다.
- (89) 예산팀장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한 수입 증대와 기숙사 시설 투자 등으로 환경이 개선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통해 기숙사 비용을 인상한 부분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90) 염수경 평의원은 그동안 기숙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시설 개선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하며 2024학년도 기숙사비 인상과 관련하여 개선된 시설에 관한 안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사생들이 개선되었음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도 기숙사 수입 증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질문하다.
- (91) 예산팀장은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생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이를 증설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했고 올 하반기에 증설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설명하다.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는 사생들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하다. 또한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며, 관련 위원회에 투자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기숙사비 인상을 결정하였음을 알리다.
- (92)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기숙사 환경 개선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며 무선랜의 경우 학내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소 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비용을 인상을 하게 되었음을 추가 설명하다.
- (93) 이수지 평의원은 대학원 외국인 학생 모집인원 증대와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이 많아질 경우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원들과도 협의가 된 것인지 질문하다.
- (94) 기획처장은 보직자워크숍과 전체교수회의 등에서 외국인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한 바 있으며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사안임을 알리다. 또한 특정 전공에 외국인 학생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을 설명하다.
- (95)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외국인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 대비 적은 수준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다. 그리고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타교 대비 적은 편으로, 향후 증가 추이를 보고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타대학을 벤치마

킹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처와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96) 의장은 학교의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자문을 종료하다.

나. 기타사항

(1) 의장은 제8기 학생 평의원의 임기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년의 임기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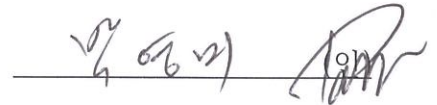
(2) 2024년 1월 회의 안건을 안내하고 회의 일정에 대해 별도 안내 할 것임을 설명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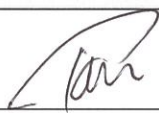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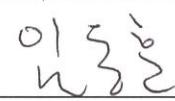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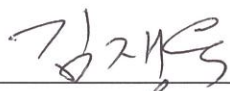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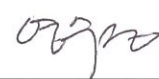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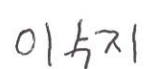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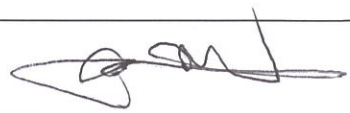
2023년 12월 28일

의 장 박 영 미



대학평의회 2023년 제6차 회의

일시	2023. 12. 28.(목) 10: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 자문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박영미	
교수 평의원	임동훈	
교수 평의원	김세완	
교수 평의원	김병선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염수경	
학생 평의원	이수지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임진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